

AUTHOR 와파나베 노부오

TITLE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내용과 정신

IN 기독교사상연구

vol. 4 (June, 1997): 87-104

#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내용과 정신\*

와파나베 노부오(渡辺信夫)\*\*

김 산 덕 역

## 1. 기독교 강요의 성격

### 1. 교리의 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가장 체계적인 신학 서적이다. 이 책에 관하여 우리는 두가지로 말 할 수 있다. 첫째는 이것이 칼빈의 독창적인 신학 사교였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지난 세대가 물려준 신학적 축적(蓄積)을 계승했다는 점이다. '강요'로 번역되는 인스티투티오(institutio)는 '교육'이라는 뜻이다. 독일어로는 운터리히트(Unterricht)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신앙의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카테키스투스(Katechismus)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 당시에

\* 이 원고는 기독교사상연구소가 주최한 제11회(1997. 4. 23) 공개강좌에서 행한 강연을 요약한 것이다.

\*\* 와파나베 노부오(渡辺信夫) 박사는 칼빈연구가로서 아시아 칼빈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약 30년전에 칼빈의 기독교강요 라틴어판을 일본어로 역간한 바 있다. 그의 예도 칼빈의 주해서인 「창세기」, 「로마서」, 빌헬름 니이켈의 「칼빈의 신학」 등 다수를 일어로 번역하였다. 저서로는 「교회론 입문」, 「칼빈의 교회론」, 「아시아 선교사」, 「전쟁의 죄책을 읽어주고」, 「종교 개혁사」, 「칼빈」 등이 있다. 현재는 동경고베교회 목사로 있다. 역자인 김산덕 박사는 일본 그리스도 교회 신학교에서 와파나베문학에서 수석하였고, 현재 일본 키타큐슈시 오리오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그가 번역한 와파나베의 「칼빈의 교회론」, 「고대신조 주해」 등이 곧 출판될 예정이다.

‘카테키스무스’, 또는 ‘인스티튜티오’라는 이름하의 교리교육 과정을 기록한 책자가 몇 권 출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숨마’(Summa) 또는 ‘숨마 독크트리나에’(Summa doctrinae)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숨마는 중세에서, 예를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숨마 테오로기카’(Summa Theologica, 신학대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장대한 학문체계의 총괄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도 사용되었다. 물론, 숨마가 가진 말의 의미가 변했다는 뜻이 아니다.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 가운데서, 토마스와 비슷한 숨마가 기록되기 때문이다. 숨마는 ‘대요’, 혹은 ‘총괄’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으로는, 성경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방대하며, 더욱이 일견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초신자에게 그냥 보게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여 질서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개념의 지도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입산할 때 지도를 주는 것과 같다. 숨마는 특히 초신자들을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순서와 조리있게 가르치는 것이다(강요, 프랑스판의 개요참조). 따라서 칼벤에게 있어 숨마는 인제나 성경전체와 관련을 가지며 성경의 집약이라고 볼 수 있다. 숨마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경의 독크트리나에를 배워야 한다. 숨마는 년소자, 또는 신앙고백을 준비하는 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신앙고백을 고백한 자들은 성경 말씀의 석의(釋義)와 성만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양육되어 간다. 그러므로 숨마를 배운 자들은 성경과 그 석의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강요에 앞서 프로테스탄트의 교리학의 책으로 멜랑히톤의 로키 콤포네스(Loci communes theologici, 1521)가 있다. 숨마와 로키에 관하여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로키는 체계별이라는 의미이다. 성경 가운데 홀오져 있는 여러 가지의 교리 개념을 하나 하나씩 정리한 것이다. 로키의 초판에 나타나는 순서는, 하나님, 유일성, 삼위일체성, 창조, 인간, 죄, 율법, 말씀의 성육, 은총, 성례전, 교회, 열쇠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더욱이 루터파의 신학적 개념 파악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숨마와 로키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은 칼빈이 멜랑히톤의 로키의 불어판 서문을 기록한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로키의 경우 반드시 체계 개념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또한 전 항목을 빠짐없이 언급하지 못하고 끝나 버리게 될 두려움이 남는다. 숨마는 전체의 통일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 2. 신앙의 변증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강요는 신앙의 변증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아마도 권두에 프랑스왕에게 드리는 헌사(獻辭)가 전형적인 변증의 글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헌사의 글과 강요의 내용은 별개의 것이다. 이전부터 준비해 온 기독교 강요가 완성되었을 때 프랑스에서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박해를 시작되었다. 따라서 칼빈은 왕에게 왕의 권력과 힘으로 이러한 박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급기 편지를 써서 칼부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 강요가 변증의 서(書)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변증적인 헌사와 함께 이것을 포함하는 강요가 변증적인 책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 II. 하나님 인식과 인간의 자기 인식

### 1. 유용하고 견고한 두 가지의 인식

칼빈에 있어서 인식과 신앙과의 관계를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신앙이란 인식인데,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확고한 인식을 말한다(III.2.2.14ff). 다시 말해서 불확실이나 불투명을 포함하지 않는 인식이다. 이 점은 인식의 완전의 확고성에 기초한다. 인간의 인식은 인간의 주체적인 영위가 아니라 객체가 된다. 가장 유용한 인식은 하나님 인식과 자기 인식이라는 두 가지이다(1.1.1). 자기 인식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와 같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계열의

기독교 사상가운데 정착된 자기 상황을 말한다.

### 2. 두 가지의 인식의 결부

존재론적인 사고를 이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침내 자명한 것으로서의 인간의 자기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존재 신학의 방법과는 다르다. 자기 인식은 하나님 인식에 부속되는 것이 아니다. 실존적인 사고의 하나로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부터 자립된 고유한 것으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지만 그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주체적인 의식은 죄의 의식이다. 그리고 죄란 하나님으로 부터의 자립을 의미한다.

### 3. 가르침의 순서에 있어 하나님 인식의 우선

인식의 중요성을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러나 가르침의 순서로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1.1.3). 이 순서를 우리가 지킬 경우, 가르침의 전체가 바르게 전개될 것이다. 인간의 인식을 선행시키게 된다면, 논리적인 전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칼빈의 사고는 스콜라 신학과 같이 객체적인 논리의 전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와 같이 주체적인 논리의 중심을 둔다. '가르침의 순서'라는 개념은 칼빈의 교리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리체계는 중요항목을 빠짐없이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이라도 틀리게 된다면 교리 전체를 체계화함에 있어 올바른 전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칼빈은 깨달은 것이다.

## III. 창조주되신 하나님

### 1.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인식과 구속주 되신 하나님 인식의 순서

하나님 인식은 이와 같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인식도 물론 성경에 의거하지 않으면 확립될 수 없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고유한 하나님 인식은 구속주 되신 하나님 인식이다. 그리고 여기서

도 가르침의 순서가 중요하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인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순서를 바꿔버리게 된다면 교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먼저 화해론에 중점을 두고 가르친 다음에, 창조론에 중점을 두는 순서로 가르치게 된다면, 선행된 화해론은 소실되어 버리게 될 것이다.

### 2. 피조물된 인간

피조물되는 인간에 관하여도 상기와 같이 대응되는 인식 구조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인식과, 창조의 상태로부터의 타락한,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되어야만 할 인간에 관한 인식이 있다. 그 순서도 상기와 같다. 무(無)로부터의 창조된 피조물 인간은 본래 선한 자였다는 것은 인간론의 출발점이다. 그리스도교적 실존주의가 허무, 부패, 불안, 사망, 죄를 출발점으로 하는 전개 방법과는 다르다. 창조론의 중요 부분은 인간의 창조에 관한 가르침이다.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 관하여는 천사론이 있을 뿐이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심하게 일그러지고 말았다. 그 형상의 회복은 칼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며 이것이 창조론의 안목이다.

### 3. 하나님의 존재

칼빈이 믿은 하나님은 스콜라 신학이 형이상학적으로 파악한 것과 같이 단순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압도적인 의지를 가진 인격으로서 인간과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전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루터의 견해와 일치한다.

### 4. 자연적인 하나님의 인식은 성립하는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피조물 가운데서 확실히 계시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인식은 자연적으로 성립하는가? 칼빈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칼빈의 그러한 이해에 대하여 역(逆)으로의 해석도 가능하고 그 해석이 옳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일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변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연적인 하나님 인식은 긍정되는 것이 아닌지. 이 점에 대하여 칼 바르트와 에밀 부룬너 간의 논쟁이 있었다. 하나님에 관한 인식은 직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으면 안된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인식은 물론이지만 구속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말씀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인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1.6). 그래서 강요에서는 성경론이 삼일되는 형태로 다음을 있게 된다(1.6-9). 즉 칼빈은 성경론을 신학체계의 출발점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결한 인식 항목이다.

### 5. 성경에 관한 교리

종교개혁에 있어서 성경론은 교회적 '전통'의 주장에 대하여 제시된 것이다. 구전으로 전승되는 소위 '전통'에 대하여, '쓰여진'이라는 기록의 행위가 완료되었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성경만이 확정된 기준이 되며, 그것은 명확하고 확실하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가 확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기강에서는 성경의 권위라는 기본원리를 세워서 그것을 기본으로 다른 교리조항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논리적인 전개방법을 취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스펀라적인 사고와 다른 점이다.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의 지중이며 그 다음에 성경이다.

### 6. 창조와 섭리

창조의 교리는 신앙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에 관한 해석의 필요성, 세계라는 존재를 무에서 창조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

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론은 인간인식에 관계된다. 창조와 섭리를 불가분의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우연적이고, 무질서하며, 불합리한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이 된다. 이것은 17세기 이후의 근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근대사상은 칼빈의 생각에서 이탈되어 자연과학적 정합성(整合性)으로 세계를 파악하려고 했다.

### 7. 인간의 창조

창조된 최초의 인간이 어떠한가를 먼저 파악한다. 인간 본성의 원초적 완성이 먼저 확인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 그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가 어떠한가? 파괴되어, 도취(倒錯)된 상태로 남아있다. 인간 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서 구원에 관하여는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그 외의 곳에서 그 유용성을 가질 때가 있다. 예를들면 인간의 지상적 생활에서 수사학, 논리학, 법의 제정 등의 기초적인 학문에 유용하다.

### III. 삼위일체론

#### 1. 고전적인 삼위일체론의 계승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1511-53)가 삼위일체를 부정했을 때, 칼빈은 이것을 철저히 공격했다. 세르베투스는 '그리스도교의 회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는 삼위일체론이 부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교의 회생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개혁이 바라는 것과 합리화를 바라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는 인문주의자 가운데서도 열심있는 유대교 연구자로서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한 것이다. 칼빈 자신도 유대교나 랍비의 성경해석을 배웠지만 그는 그리스도교 신학으로써 지켜야 할 분명한 선이 있음을 확실히 알았다.

칼빈이 [신앙 지침서](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 OSI, p. 378)를 기록하면서, 삼위일체론을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부정론자로 간주되어 이단으로 고소된 경우가 있었다. 그 때 그는 삼위일체론의 신앙적인 고백을 기록하여 해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삼위일체 부정론자로 간주됨을 두려워해서,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의 형제자매들이 시험에 빠져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칼빈이 고대교회의 교리를 교회의 기본적인 것으로 계승하여 아주 중요시했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중요시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고대 교회의 신앙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칼빈의 삼위일체론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2. 계시에 기초한 삼위일체론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상재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 강요에서의 삼위일체론은 그렇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지 않는다. 삼위일체론의 독립된 저작을 칼빈은 생각하지 않았다. 상세하게 논술하여 자기 만족으로 이론화되는 것을 그는 삼가하였다. 삼위일체론을 추론의 전제로써가 아니라 계시에 근거한 사고로만 이해하게 하는 것이 간요(肝要)였다.

## 3. 삼위일체 퇴신 하나님의 시역으로서의 구원사

고대의 삼위일체론의 주요한 계기가 존재론이었던 것에 대하여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구원사적, 또는 경론적이며, 세 위격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그 역사(役事)취임에 중점이 있다.

## IV. 종보자 퇴신 그리스도

### 1. 참 하나님, 참 인간

칼빈의 그리스도론은 고대교회의 니케아-칼케돈의 그리스도론을 계승하고 있다. 칼케톤적이라고 말하면, 양성을 단순히 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향이 있지만, 칼빈은 그 양성이 서로 혼동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관계를 엄밀히 다물려고 했다. 따라서 루터와 같이 '속성의 교류'(Communicatio idiomatum)라는 사상을 지나치게 중시하지는 않았다. 인성은 성육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로부터 섭취(攝取)되었다. 그 때 그분은 인간이 되었다. 그 때에 신성에는 어떤 변화도, 어떠한 상해(傷害)도 가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온전하신 참 사람이시다.

## 2. 영원한 종보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는 언제나 종보자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도 종보자는 필요했으며 존재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격으로서였다. 종보적인 말씀이 존재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관계 특히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 3. 구약에서의 구속주

하나님 자신께서는 구속의 주로서 스스로 계시하고 계신다. 하나님 인식이란 세계 창조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인식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종보자의 위격에서 계시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속의 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따라서 구약의 백성도 구속을 알고 회개를 바쳤다. 구약의 선조들에 대한 하나님의 현현(顯現)은 종보자의 위격으로서의 현현이라는 교부들의 견해를 계승했다.

## 4. 율법과 그 용의(用益)

율법은 계약이라는 큰 틀 안에서 파악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용법'(usus)이라는 생각은 멜랑히톤이 로키에서 최초로 언급한다. 용법은 사역기능과 동의어이다. 멜랑히톤에 의하면, 제 1용법(usus theologicus, pedagogicus)은 신학적이라고 말하

여기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교육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몽학선생'에서부터 왔다. 제 3용법(tertius usus)은 중생한 자에 대한 용법이다. 칼빈은 그것을 답습한다(칼빈은 1과 2의 순서를 바꾼다.). 칼빈의 특징은 제 3용법의 강조이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주요 용법이라고 말한다.

### 5.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은 순종이라는 한 마디의 말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되신 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대신하여 순종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단회적이라는 것이 강조된다(히브리서의 주장). 그 점으로써 삼자가의 죽음이 있다. 삼자가의 죽음이 고난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리했다는 점이 칼빈이 주장하는 특색이 된다. 고난을 강조하여 이것을 죄있는 인간의 카타르시스로 보고자하는 견해는 칼빈에게 용납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강조된다. 인정으로서의 부활과 승천이다.

## V. 그리스도와의 사귄

### 1. 성령으로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온사를 기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외부에 머물러 계시는 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수행하지는 것이 성령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된다(unicum Christo). 신앙의 고유 대상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분이 거저신 모든 온사와 약속과 함께 그리스도 그 분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수여받을 수 있다.

### 2.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확고한 인식이다. 인식을 배제한 로마교회의 소위 함축적 신

앙은 거부된다. 영적 능력, 이상한 능력도 본래적 의미의 신앙이 아니다. 믿음에는 추문적인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는 카톨릭의 이해를 칼빈은 맹렬하게 비난한다. 카톨릭은 종교개혁이 말하는 이신칭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믿음에 관하여 너무나 자신있는 견해다. 믿음에는 불확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추론으로써의 믿음을 타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신칭의 교리를 위해서 는 믿음 그 자체의 확고한 파악이 필요하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어들이 는 파이포, 아니면 용기(容器)로써, 그 자체는 비어 있다. 믿음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 한다. 그러나 말씀에는 언제나 성령이 수반되고, 함께 역사하여 믿음을 성립시킨다.

### 3.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 들인다.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를 소유하고 계 신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와 그 은혜가 믿음의 열매이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 되셨으니(고전 1:30)라는 말씀 그대로이다.

### 4. 믿음과 사랑의 사역

믿음은 사랑의 사역을 수반한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사랑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음은 성령의 사역이며, 믿음의 내실은 그리스도 그 자체이므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로써 성립된다.

## VI. 칭의와 중생

### 1. 칭의

칭의에 관하여는 루터의 주장을 답습하여 그것을 더욱 철저히 다지고

있다. 믿음의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며, 믿음이 공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이른바 용기로써, 이 용기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의 의로 전가(轉嫁)되는 것이다. 칭의는 의로 인정되고, 의로 선언되고, 의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 혹은 의를 이루는 정의(正義)나 의롭게 되어가는 의화(義化)는 아니다.

## 2. 칭의와 증생의 순서

칭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화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성화를 강조하면 칭의가 허술하게 된다. 역으로 칭의만을 고집하게 되면 성화가 경시되게 된다. 이러한 프로테스탄트적인 탈레마를 칼빈이 해결했다. 증생이 먼저로 증생의 일차적 결과가 칭의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르침의 순서적인 문제라기보다 문제 그 자체의 이해이다.

## 3. 행위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행위도 의로 인정된다.

칭의는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제외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칼빈의 칭의론이 가지는 첫 번째의 특색이다. 믿음을 의로 인정하지는 하 나 믿음 안에서 행하여지는 사역을 불완전하지만 의로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된다. 이러한 것의 강조는 칼빈의 두 번째 특색이다.

## VII. 신앙과 회개

### 1. 회개라는 것은 증생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열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95조항에서는 그 회개의 주장이 진실한 통회의 요구만으로 그친다. 회개를 그러한 소극적으로 죄를 통회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다. 칼빈은 회개를 증생으로서 파악한다. 따라서 회개를 논하는 논의는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 2. 믿음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의 순서로 믿음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칼빈은 확실한 믿음에서부터 회개라는 순서로 논급하고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고 그 다음으로 회개를 주장하는 순서가 채택된 적은 있지만, 그러나 루터파에서는 결국 정착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율법에 의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그것으로 부터 믿게 된다는 순서가 일반화 되었기 때문이다.

### 3. 공적으로서의 행위 부정

차비히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지만, 이러한 상급을 기준으로 하여 신앙인의 봉사와 신앙, 기차나 공적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은혜는 온전히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 4. 증생의 실행으로서의 자기 부정

신앙인의 생애에는 경건의 수련이 필요하다. 기도가 제일의 수련이며 함께 자기의 십자기를 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웃 사랑과의 관련 가운데서 실행된다.

## VIII. 영원한 선택과, 이중 예정

### 1. 칼빈에게 있어 예정론은 출발점이 아니다.

후세의 칼빈주의자는 예정론, 아니면 성경론(聖經論)을 신학체계의 공리와 같이 그것을 먼저 확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다른 교리 조항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지 않다. 예정론의 위치가 첫 단계에 배열된 것도 아니며, 구원에 관한 논술 후에 비로소 예정론이 나온다. 이와 같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예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예정론은 경험적인 사실에서 산출해 낸 이론인가? 칼빈은 그러한 질문에 의한 교리의 정립을 거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귀결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 2. 예정은 하나님의 오의(奧義)에 속한다.

이론상의 일관성의 문제로써 예정은 호기심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이예정에 대한 논의는 신증을 요하지만 숨겨두어야 할 것은 아니다. 이 교리를 배움으로서 엄청난 유익이 있다. 구원의 확신은 예정의 확신이 있음으로써 성립되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히 겸손하게 한다. 이 교리도 칼빈의 교리의 특색인 확신과 겸손에 기초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 여부에 관해서 모색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것이므로 알아야 할 사항도 아니며, 알 수도 없다. 단지 타인에 관하여는 말씀을 믿도록 권고할 뿐이다. 예정론의 오용은 거의가 이 점에서 야기된다(오의, 奧義란 보통 비밀로 번역되는 무스테리온, *μυστήριον*인데 '비밀'이라고 용어보다는 '오의'라고 번역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역자주).

## 3. 구원의 계획과 실시라는 전번적인 관련 가운데에서의 예정

택함을 받은 자가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말씀을 듣고, 믿어, 외롭다함을 받아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일관성이 중요하다(들 30).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듣게 되어 구원의 보증으로서의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믿어야 할 것이다.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파의 화형신조는, 예정은 예지에 기초한다고 이해함으로써 예정을 오의(奧義)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칼빈은 예정은 예지에 기초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4. 예정론을 칼빈의 교리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다.

예정론을 칼빈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 거의 모든 개혁자가 예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만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루터의 [노예지론](*Servum arbitrium*)이 예정을 강조하고 있다.

## IX. 진정한 교회와 거짓 교회

### 1. 참된 교회의 표식

교회는 믿어야 할 대상이므로 보이지 않는다. 단지 표식에 의해서 식별된다. 그러므로 표식이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으면 안된다. 그 표식은 1)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설교되고, 성취되는 곳, 2) 성례전이 바로 시행되는 곳이다. 흔히 세 번째 표식으로 규율과 훈련의 시행을 거론하는지도 있지만 의서는 본질적인 표식이라고 할 수 없다. 두 가지의 표식은 아우구스부르그의 신앙고백의 규정을 담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곳에는 청취되는 것의 수여 받는 것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2. 직분(Ministerium)

교회의 직분은 객관화 되어 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위탁이다. 주의 위탁이 주관화되지 않도록 교회의 확인이 필요하다. 위탁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칼빈의 미니스테리움에 관한 이해의 특징으로 그 다양성을 성경에 의거해서 인정했다는 것이다(고전 12). 루터파에서의 직무는 설교직 뿐이다. 단지 모든 신앙인에게 미니스테리움이 있다고 논하는 것은 않는다. 부르심을 입어 직무를 위탁받은 자만이 이것을 담당한다.

### 3. 특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의 직분

설교를 하지 않는 성직자는 있을 수 없다. 말씀의 선포에는 공적인 집회에서의 선포와 개별적인 선포가 있다. 말씀이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

적의 용서와 종생의 확인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선포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다. 이럴 때 개별적인 적용을 행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다.

#### 4. 교회에서는 수위(首位)에 서는 사람은 없다.

각분의 성격상 전체를 지도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 사람을 위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칼빈이 중시한 것은 직무의 객관적인 파악과 회의의 통한 권능의 행사이다.

#### 5. 교회의 질서

칼빈은 교회의 질서를 강조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존재하기 위해서이다. 그 질서는 자유와 양립한다. 가톨릭 교회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양심의 구속이 되는 입법권을 종교개혁은 소용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에 따르는 것은 구속이 되지는 않는다.

### X. 교회의 국가

#### 1. 하나님의 두 개의 질서

국가론은 교회론의 외연으로서 아니면 부록으로서 전개된다. 국가는 교회의 외부에 존재하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이다. 그것은 질서, 법적 제도로서의 그 의미가 인정된다. 따라서 재판과 치안 유지가 정부의 직무이며, 그것을 위해서만이 권력이 맡겨져 있다. 그러나 칼빈은 16세기적 관념으로부터 교회와 국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이해를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도 타당하다.

#### 2. 상이(相異)한 두 개의 질서

루터가 하나님의 우편의 지배와 좌편의 지배로써 파악한 이해를 칼빈은

기본적으로 계승한다. 그렇지만 루터와 같이 나무나도 대조적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용서와 율법에 의한 심판의 대조에 기초하여 설명하지는 않는다. 정부도 하나님의 지배하심으로 주어진 것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노여움의 그릇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의 사상은 칼빈에게 있어서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의 자율을 생각하는 자들과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의 대립이 시작되면서, 칼빈은 교회의 자율을 위해서 고투했다. 교회와 국가의 치원이 상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 3. 지상적 지배에 관한 불종과 그 한계

공권력의 지배에는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만을 참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 그러한 때에 불복종이 인정되고, 불복종이 허용되고, 입부에 대한 거부기 행사된다. 그것은 순교 아니면 사망, 또는 반항이다. 검을 소용한 반항은 검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안된다. 일반 민중에게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인민의 주권 사상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상급 권위의 파오에 대한 하급 권위의 반항이 인정되어 더욱이 위무화 되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특색으로 일컬어지는 저항권의 사상인데 칼빈의 독창적인 이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가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공권력이 성립되는 기초로써 칼빈은 '백성들을 위한 것' 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이 후계자들이 보다 확실히 언급하게 된다. 칼빈은 공권력과 백성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본다. 계약을 위반하는 왕은 왕의 직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의 위법 권력이 저항하는 것은 합법이 된다.

참고서

나이젤, [칼빈의 신학]

F. L. Bartes ed, An Analysis the Institur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John Calvin.

Paul C. Boertger, Calvins Instituto als Erbauungsbuch. Versuch einer literarischen Analyse, 1990.

바르트이 기독교론  
(Karl Barth's Christology)

황 대 우\*

I. 서론

교의학에서 무엇 보다도 오래된, 그리고 중요한 교리는 기독교론이다.)  
기독교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마 16:16, 막 8:29, 눅 9:20)는 대답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인

\* 고신대학교 신학자(B. A.) 신학대학원(M. Div.)를 거쳐 고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전공하였고(Th. M.) 현재 화관 아벨도론 신학대학에서 칼빈과 부서에 관한 교회론으로 신학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1) 바르트는 기독교론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론이 기독교적 의미에서 모든 신인식의 시금석이요, 모든 신학의 시금석이다. '당신의 기독교론이 어떠한 것인가' 내게 말하라. 그리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것이다.' 여기서 길이라고 갈라지며, 여기에 바로 신학과 철학의 관계, 신인식과 인간인식의 관계, 계시와 이성의 관계, 복음과 율법의 관계, 신적진리와 인적 진리의 관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관계, 신학과 정치의 관계가 결정된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명료하게 되든지 불명료하게 되며, 밝게 되든지 어둡게 된다. 이는 여기에서 우리는 중심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Karl Barth, *Dogmatik im Grundriss*, 전경언 역, [바르트교의학개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p. 94)